# 보원사지 ·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지정

**국가유산청 지정 공고 잇달아**

**통일신라 양식 계승한 고려塔**

**전형 보여 주는 보원사지 석탑**

**조성목적, 시기 등 확인 되는**

**190자 새겨진 개심사지 석탑**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보로 지정된 (사진 왼쪽부터)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고려 시대 조성된 두 석탑 모두 우리나라 석탑 조성 시기를 알 수 있게 하는 편년 기준이 되는 문화유산이다.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석탑 2기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탄문(坦文, 900~974년)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해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이 남아 있다. 또한 석탑의 조영기법, 양식을 고려했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編年) 기준이 되는 고려 시대 석탑이다.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 구성이며, 부조(浮彫) 조각기법으로 아래층 기단 면에는 형상이 다른 사자상(獅子像)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비교적 명확한 조성시기와 함께 고려 왕실과 불교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통일신라 말기 조영기법과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 시대 새로운 기법들이 적용된 석탑으로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국보로 지정된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1011년(고려, 현종 2년)에 건립된 고려 시대 석탑으로, 석탑에 새겨진 190자의 명문이 있어 구체적인 건립시기와 과정, 당시 사회상 등을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함께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의 편년 기준이 된다는 평가다.

국가유산청은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석탑에 새겨진 명문으로 건립 목적과 과정, 시기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면서 "아래층 기단에서 1층 탑신까지 십이지상-팔부중상-금강역사상을 부조 방식으로 조각해 불교 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가치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보로 승격·지정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선 후기 사찰 '누각'들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12월 19일 예고**

**순천 송광사 침계루 등 3건**



보물로 지정예고된 순천 송광사 침계루.

'순천 송광사 침계루' 등 조선 후기 조성된 사찰 누각 3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순천 송광사 침계루', '안동 봉정사 만세루', '화성 용주사 천보루' 3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선 시대 사찰 누각은 중심 불전 앞에 위치해, 많은 신도가 모여 예불과 설법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사찰 가람배치에서 일주문→사천왕문(금강문)→누각→주불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건축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사찰 누각 중에서 보물로 지정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불교계의 협력을 통해 2023년부터 전국 사찰의 누각 38건에 대한 '예비건조물문화유산 가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7~18세기에 걸쳐 건립 및 중창된 조선 후기 사찰누각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게 됐다는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순천 송광사 침계루'는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 중수기를 통해 1668년(숙종 14년) 혜문스님이 중건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목부재(평주·대량·중량·종량 등)에 대한 연륜연대 조사결과에서도 1687년에 벌채된 목재임이 확인돼 역사적 가치가 크다.

'안동 봉정사 만세루'는 1680년 건립되어 '덕휘루(德輝樓)'라 불렸다. 〈봉정사동루기(1534년)〉 등 건립과 중수과정 등이 기록된 내부 편액을 통해 사찰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화성 용주사 천보루'는 대웅전의 중심축에 위치하는 건물로 유교적 건축요소가 혼재돼 나타나는 원찰(願刹)의 특징을 살필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한 '순천 송광사 침계루' 등 3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㉔ 삼륜청정(三輪淸淨)

# 선순환의 조건

三 輪 淸 淨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며, 밤의 여행자들이다. 하룻밤 머물 자리를 내어 줄 배려와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다정함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개봉한 영화 '파리, 밤의 여행자들'이 관객에게 건네는 메시지다.

이 영화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뒤 파리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엘리자베트의 이야기다. 그녀는 심야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화 교환원으로 일하던 중,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소녀 탈룰라를 집으로 초대하며 인연을 맺는다. 낯선 이방인과 엘리자베트의 가족은 한 지붕 아래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지만, 탈룰라는 어느 날 말없이 떠난다.

4년 뒤, 마약에 의존한 채 심신이 지친 모습으로 탈룰라는 돌아온다. 엘리자베트는 마약을 끊겠다는 단 하나의 약속을 조건으로 그녀를 받아들인다. 이 영화에는 극적인 사건이나 과장된 갈등이 없다. 직장과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 담담하게 이어질 뿐이다. 인물들은 자기 비하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간다. 엘리자베트는 탈룰라에게 "원하는 만큼 머물라"라고 말할 뿐, 더 묻거나 훈계하지 않는다. 가족과 동료들 역시 지금 나눌 수 있는 만큼을 조건 없이 내어놓는다.

자비를 수행의 핵심 덕목으로 강조하는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의 첫째는 보시바라밀이다. 보시는 흔히 '베푼다'고 번역되지만, 오늘날에는 '나눈다'는 표현이 더 익숙하다. 더 나아가 '섬김과 나눔'은 자본의 독주를 넘어 상생을 지향하는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화엄경〉과 〈대지도론〉등에서는 보시의 올바른 조건을 '삼륜청정'으로 설명한다. 주는 이, 받는 이, 그리고 주고받는 그것이 모두 청정할 때 비로소 참된 보시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이는 동기에 불순한 의도가 없고, 그 내용 또한 서로를 위로하며 감사와 보은의 마음이 오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삼륜청정에서 '청정'은 주고받는 과정에서 어떤 '관념'이나 '애착'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공적한 상태를 청정이라고 한다.

찬드라키르티의 〈입중론〉에서는 분노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삼륜청정을 제시한다. 보살의 인욕(忍辱)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공성에 대한 통찰이라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행위와 시점 등 모든 요소가 자성과 실체를 지니지 않으며 환영(幻影)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욕은 완성된다.

연기법은 사물이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고받는 관계의 법칙을 드러낸다. 따라서 삼륜청정은 개인의 수행이자 동시에 이웃을 향한 자비의 실천이다. 붓다의 시대를 떠올려 보자. 존중과 공경의 마음으로 밥을 내어놓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하심과 감사로 그 밥을 받으며 수행을 이어가는 이들, 그 평범한 일상이 곧 삼륜청정이다. 영화 '파리, 밤의 여행자' 속 인물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 주는 다정한 '마음의 공간'이야말로 행복을 선순환시키는 힘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 국립부여박물관, '백제대향로관' 개관

**12월 23일, 3층 규모 전용관**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신영호)이 국보 백제금동대향로의 예술성과 세계관을 집약적으로 조명하는 전용 전시관 '백제대향로관'을 12월 23일 개관했다.〈사진〉

1993년 12월 12일,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된 백제금동대향로는 용과 봉황, 신선과 동물, 악기를 연주하는 다섯 연주자 등으로 이뤄진 독창적인 조형으로 백제인의 세계관과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문화유산이다. 국립부여박물관은 향로의 예술적·사상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5년간의 준비 끝에 전용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백제대향로관은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조성됐으며, 건물의 층위와 공간 구성에는 백제금동대향로의 조형 구조가 반영됐다.

1층은 수중 세계를 모티프로 한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기존 상설전시실과 연결되고,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1층과 3층 전시실을 잇는다. 3층은 향로 상부의 산악과 천상 세계를 형상화한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다.

체험 공간 '향·음'에서는 향 기둥 체험과 음향·촉각 체험,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며, 휴게 공간 '향·유'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